

주류사회에서 아웃사이드의 정체성 찾기*

-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송명희(부경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탈식민과 다문화적 정체성 |
| 2. 페르조나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 | 5. 결론 |
| 3. 아니마로서의 여성-메리 번즈, 서니, K(끝애) | |

1. 서론

재미한인작가 이창래의 작품은 발표될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계 소수민족작가로서 미국 문단에서 그의 활약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1995년 데뷔작인 『네이티브 스피커』로 헤밍웨이재단상과 팬문학상을 받았고, 1999년에 두 번째 소설 『제스처 라이프』로 아니스필드-볼프 도서상과 아시아계 미국인상을 수상하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국내에서도 잇따라 번역되고,¹⁾ 연구논문이 계속 나오는 등 학계의 관심 또한 뜨겁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임(2009-32A-A00094)

1) 첫 번째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1995),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1999), 세 번째 소설 『가족(Aloft)』(2004)는 모두 번역되었고, 네 번째 작품 『서렌더드(The Surrendered)』(2010)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제스처 라이프』에 대해서는 작품이 출판된 직후부터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다. 푸코의 권력이론을 근거로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²⁾, 라캉의 ‘응시(gaze)’의 개념으로 작품을 분석한 논문,³⁾ 스피박의 ‘하위주체(subaltern)’란 개념을 통한 분석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생존윤리를 묻는 논문들⁵⁾, 주인공 하타의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인칭 서사가 하타의 젠더화된 트라우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한 연구⁶⁾, 비교문학적 논문들⁷⁾, 이밖에 작중인물의 변화에서 나타난 송고미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문⁸⁾ 등이 그것이다. 국내의 논문들이 푸코, 라캉, 스피박의 이론을 적용하거나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이민자의 정체성과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이며 작품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 시선을 취한 데 반해 미국의 해밀튼 캐롤(Hamilton Carroll)⁹⁾과 조안 장(Joan C.H. Chan

2) 나영근, 『『제스처 인생』: 신역사주의적 고찰』, 『현대영미소설』 7-2, 현대영미소설학회, 2000, 1-12면.

3) 권택영, 『응시로서의 『제스처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학』 48-1, 2002, 243-261면.

4) 유제분, 『재현의 윤리: 『제스처 라이프』의 중군위안부에 대한 기억과 애도』, 『현대영미소설』 13-3, 현대영미소설학회, 2006, 77-99면.

5) 고양성·노종진,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존재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 연구』 47-2, 2005, 143-166면.

박보량,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이민사회 속에서의 하타의 정체성 모색』』, 『미국소설』 2-2, 미국소설학회, 2005, 127-149면.

이선주, 『이창래의 『제스처인생』-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 『미국학』 31-2, 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2008, 235-264면.

장사선, 『재미한인소설에 나타난 폭거와 응전』, 『한국현대문학연구』 18,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05, 481-509면.

6) 이소희,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젠더화된 트라우마』, 『현대영미소설』 13-1, 현대영미소설학회, 2006, 133-156.

7)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문예비평학회, 206, 115-135면.

Lee, Hae-Nyeon,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Writer’ Post-Colonialism”,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11-133면.

8) 김미영, 『〈제스처라이프에 나타난 송고미의 교육적 가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학회, 2005, 429-458면.

g)10)은 주인공 하타의 행동을 동양남성의 열등감 또는 모범소수민족 콤플렉스로 해석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관점으로 분석했다. 살펴보았듯이 『제스처 라이프』에 대한 기존연구는 칼 융의 정신분석학에 기대서 연구된 바 없고, 정신분석학적 탈식민주의 이론이나 탈식민주의 이론가 사이드의 '과생과 제휴'라는 개념으로도 분석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창래(Chang-rae Lee)의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에 나타난 하타(Franklin Hata)라는 주인공의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를 칼 융의 분석심리학과 정신분석학적 탈식민주의 이론과 사이드의 과생과 제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노년의 하타가 페르조나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국 혈통의 일본계 미국인의 페르조나 속에 억압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탈식민주의적인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페르조나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

칼 융(C.G.Jung)에 의하면 나(ego)는 한편으로는 외계(external world)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 내계(internal world)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다. 외계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페르조나(persona)는 집단적으로 주입된 생각이거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아는 차츰 집단정신에 동화되어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개성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을 자아가 페르조나와 동일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히 맞추는 사람, 즉 집단이 옳다고 말하는 규범은 무엇이나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페르조나와의

9) Hamilton Carroll,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2005), pp.592-616.

10) Joan C.H. Chang, "A *Gesture Life*": Reviewing the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7:1(2005), pp.131-152.

동일시가 심해지면 자아는 그의 내적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¹¹⁾

『제스처 라이프』의 주인공 하타는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인 가정에 입양됨으로써 일본인이 되었으며, 태평양전쟁시에 위생장교로 복무했고, 종전 후에는 미국에 이민하여 서니의료기기상을 운영하며, 예의바른 미국인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70세의 은퇴한 노인이 된 하타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닥 하타(Doc Hata)’라는 호칭과 그의 아름다운 튜더식 2층 집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그가 단지 의료기기 판매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닥(의사) 하타’라는 우호적인 호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위생장교 출신의 그의 가게를 “아무 때나 불쑥 들러 상담을 할 수 있는 비공식 진료소”로 여기며, “경험이 풍부하고 물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주인에게 자유롭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사실 나는 오래 전부터, 특히 점점 줄어드는 여생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이르러 있는 내 모습을 평가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느꼈고, 이제 그 작업을 해보려 한다”¹²⁾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하타의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져 온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찾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자아를 찾기 위해 미래로 떠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추구한다. 억압된 것은 항구적으로 회귀를 모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 언제나 재출현한다는, 즉 억압된 것의 귀환¹³⁾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주인공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의식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나타내주는, 베들리런(Bedley Run)에 위치한 아름답고 큰 튜더 왕조식의 2층집-“당당한 꽃밭과 약초정원, 판석을 깬 수영장, 납을 넣은 유리, 단철로 지은 온실까지 갖춘 큰 집”-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해

11)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43, 65-70면.

12) 이창래, 『제스처 라이프』 제1권, 중앙M&B, 2000, 18면.

13) 장 벨맹-노엘, 최애영·심재중 역, 『문학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12면.

왔다.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고, 부동산업자로부터는 팔리는 권유를 수시로 받아왔던 집이다. 그런데 익숙함과 편안함과 소속감이 행복하게 조합된 그 집에 대한 당연한 느낌들이 갑자기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자신에 대한 그곳 사람들의 우호적 평판이나 그곳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당혹스런 측면이 있다고 돌연 고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직접 꾸며놓은 아름다운 뒤뜰의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것밖에 할일이 없어진 자신, 어찌면 로맨틱 하고, 승리를 거둔 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약간은 슬픈 광경’, ‘차갑고 텅 빈 아름다움을 지닌 광경’, ‘땀 빠진 광경’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물밑에서 검은 냉기 속을 미끄러져 갈 때, 내 정신의 눈은 갑자기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장면은 의식의 너머에 존재하는 미지의 정신세계, 즉 무의식의 일렁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자칫 이 대목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것으로 인해 초자아가 자아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오독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아로 하여금 원시적 욕구를 억제하고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인 초자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뭔가 알 수 없는 정신세계라는 점에서 무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가 예의바른 미국인으로 존경을 받아온 우호적 평판과 이제껏 만족해온 집과 그곳하게 수영을 즐기는 자신에 대해서 낮설고, 당혹스러운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만을 의식하며 페르조나에 자아를 일치시켜온 삶에 대해서 회의론을 품게 되었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그의 자아 찾기의 여정은 출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거실의 난로에 장작불을 피우다가 실수로 불을 내어 실내의 일부를 태우게 된다. 그런데 이 실화는 단순한 실수로 낸 불이 아니다. 즉 지금까지 페르조나와 자아를 동일시해온 과거를 불태우는 의미심장한 불이며, 그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그의 내적 자아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불인 것이다. 왜냐하면 불을 낸 쇼크로 카운티 병원 성인병동에 입원한 이후 그는 메리 번즈, 서니, 그리고 K(끝애)와의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메리 번즈(Mary Burns), 서니(Sunny), 그리고 K(Kkutaeh)라는 세 명의 여성은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하타의 아니마의 투사이다. 메리 번즈는 그가 오십대에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던 백인여성이다. 서니는 그의 집을 13년 전에 떠나버린 양녀로서 한국출신의 흑인과의 혼혈아이다. K는 그가 위생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사랑했던 조선출신의 정신대로 차출되어온 여성이다. 이 세 여성은 모두 하타로 하여금 페르조나로서의 삶, 제스처 인생을 벗어던지라고 촉구하는 인물들이다.

3. 아니마로서의 여성-메리 번즈, 서니, 그리고 K(끝에)

외적 인격에 대응해서 내적 인격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것을 융은 '마음'이라 불렀다. 내적 인격은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남성의 무의식 속의 내적 인격인 아니마(anima), 여성의 무의식 속의 내적 인격인 아니무스(animus)로 구분된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경험적 관념으로서 그것이 어떤 대상에 투사되어 경험될 때 인지될 수 있다.¹⁴⁾ 우아한 백인여성 메리 번즈는 이미 고인이 된 인물로 과부였다. 하타는 일본을 떠나오면서 새로운 땅에서의 적응이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는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거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음에도 평온한 느낌의 그녀와는 "따뜻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양녀 서니에 대해 그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니가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의 열정이 결여된 의례적 태도로 인해 결렬되고 말았다. 하타의 서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번즈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그래요, 그 애는 주체적이예요. 하지만 당신은 마치 그 애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애를 원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 애를 입양한 거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마치 죄를 지은

14) 이부영, 앞의 책, 72-73면.

사람처럼 행동해요. 전에 그 애한테 상처를 준 사람처럼, 아니면 그 애를 배반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야 하는 사람처럼. 그것은 누구에게나 절대 좋지 않아요. 하물며 아이한테는.”¹⁵⁾

메리 번즈가 지적하였듯이 서니에 대해 당당하지 못한 하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것은 그가 일본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대한 양육태도로 합리화하고 있음에도 그의 무의식이 억압하고 있는 K(끝애)에 대한 죄책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한국 출신의 여자아이를 양녀로 원했던 것도……. 결국 번즈는 “당신은 늘 노력을 해요, 프랭클린.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하죠.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맹세한 의무인 것처럼”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를 떠난다. 서니에게나 하타에게 번즈는 충분히 진지한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서니는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고, 하타는 그녀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노력하는 관계, 의무처럼 사랑하는 관계란 친밀감과 신뢰는 있지만 내적 열정이 부재하는 관계일 것이다. 하타는 진실로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란 어떠한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번즈를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가 보여준 의례적인 노력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닌, 그의 내면이 욕망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열정적이고 진실한 관계였을 것이다. 그녀는 결국 제스처로서의 태도가 아닌 내면의 진실과 열정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갔던 것이다. 그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타는 그녀가 말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음을 회고한다. 즉 페르조나에 사로잡힌 채 아니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제스처 인생은 칠십이 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조선인 갓바치와 녕마주이의 아들로 태어나 톱니바퀴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인 사장 집에 입양된 것처럼 서니 역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아이였다. 그의 양부모가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제공해 주었고, 그가 친부모의 열악한 환경을 떠나 경제적으로 풍족한 양부모를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던 것처럼 서니 역시 비슷한 인종에다

15) 이창래, 앞의 책, 86면.

충분한 자산까지 갖추고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 예의바른 미국 교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고마워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서니는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나를 필요로 했어. 하지만 그 반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라고 가차 없이 말하고 그를 떠나갔다. 뿐만 아니라 서니는 하타의 제스처 인생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는다.

“아무것도요, 저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아빠의 관심도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짜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운에서 아빠가 어떤 평판을 얻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거기에 상처를 내지나 않을 하는 것이고요.”

“말도 안 돼. 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아 온 것은 아빠가 모든 일에 매우 주도면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쁘고 큰 집에서도, 이 가게에서도, 모든 손님들에게도, 보도를 쓸고 다른 가게 주인들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걸 한 번 보세요. 아빠는 제스처와 예의만으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어요. 아빠는 늘 다른 사람한테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동료가 되려고 해요.

“왜 그래서는 안 되니? 우선 나는 일본인이야! 유순해서 남들의 사랑을 받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흥, 베들리런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카드 가게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쓰레기와 보도 청소 일정을 잘 짜는 ‘착한 찰리’를 두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진짜로 생각하는 건 그거라고요. 일등 시민이 되는 게 아빠의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¹⁶⁾

제스처와 예의만으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는 서니의 직접적인 비난에도 하타는 자신이 페르조나와 동일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데 대한 자각을 갖지 못하며,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서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면서 책을 많이 읽는” 소위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하타의 양육방식을 견디지 못하고, 집밖으로 일탈하다 떠나갔다. 하타는 예전에 그의 양부모가 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서니에

16) 이창래, 위의 책, 128-129면.

게 “내 집과 내 가게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타운의 선선한 배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시했는데도 그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떠나버린 서니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하타에게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어떤 것, 즉 의무나 제스처가 아닌 부녀간의 진실한 사랑과 대화였을 것이다. 이를 하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방문한 코모 경관의 다정한 모녀관계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나 그 자신 조선인 친부모나 일본인 양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만큼 그것을 서니를 향해 베풀 줄 몰랐다. 아니 그는 부모자식관계에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위생장교 시절에 그는 양부모가 최선을 다해 기회와 편의를 제공했으며, 늘 아들로 대했다고 하자 K가 그분들이 소위님을 아들처럼 사랑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늘 나를 아들처럼 대했으면 됐지 더 이상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라고 대답한다. 즉 부모 자식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사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아예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서니에 대한 태도 역시 그의 인생처럼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은 서니의 일탈에 대한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불량배 ‘기지’의 집에서 흑인 ‘링컨’과 외설스럽게 밀착된 자세로 있는 서니를 발견하고도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는 대신 그 자리를 떠나버림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회피해버린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출했던 서니가 임신 28주의 몸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중절수술을 강요하며, 그 애한테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 자신에게 가해져 올 수치와 당혹만을 느꼈을 뿐이다. 그는 서니와 같이 사는 동안 “한 번도 불길한 느낌에 시달려 심각하게 괴로웠던 적은 없었고, 한 번도 골수까지 병들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회고하며 깊은 죄책감을 갖는다. 특히 서니의 인공중절 수술을 종용했던 데에 대한 그의 죄책감은 그가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가 서니의 입장을 결심하게 된 동기도 미국 주류사회에서 더욱 신뢰할만한 존재로 평가받기 위해서였는데, 서니의 행동들은 그것에 오히려 흠집을 냈다. 따라서 서니가 가출한 뒤 그는 타운에 어울리는 일등시민, 그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사생활과 예절과 힘겹게 얻은 특권에 수반되는 고요-을 구현한, 살아 숨 쉬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된다. 서니의 직언 그리고 떠나감도 그에게 페르조니를 벗어던질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남들의 평판과 일등시민의 자부심 속에서 계속 안주해왔던 것이다.

그가 K(끝애)를 만난 것은 일본제국의 위생장교로서 미얀마에서 복무할 때이다. 그녀는 남동생의 징병을 대신하여 그녀의 언니와 함께 끌려온 위안부였다. 그녀는 기품 있는 양반집안의 딸로서 체계적인 근대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하타가 일본제국이 선전하는 대로 되닌 대동아공영권의 허위의식을 통찰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으며, 그에게 '조선사람'이냐고 질문함으로써 그의 민족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녀는 하타의 사랑한다는 고백, 전쟁이 끝나면 함께 가자는 말들이 한낱 젊은이의 열정이나 꿈일 뿐임을 꿰뚫으며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뭘 원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 젊고 젊잖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말해주죠, 그건 내 섹스예요, 내 섹스라는 물건이에요"라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조선여성이다.

에도 상병이 K의 언니를 죽여주고 자신은 처형당했던 것과는 달리 하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녀와 실제 사랑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어 달리는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함으로써 그녀를 집단강간을 당하고 죽도록 방치했다. 죽음이야말로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그녀가 위안부로서의 삶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녀를 가장 치욕스럽게 죽어가도록 방관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깊은 죄책감은 그의 무의식에 수십 년 동안 억압되어 있었다.(그녀의 존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의 이름을 '끝애' 대신 'K'라는 약자로 호명하는 데서도 무의식중에 드러난다.) 하지만 그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독신으로 살게 만든 것, 메리 번즈의 진지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한국출신의 입양녀를 원했던 것 등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그러나 하타 자신은 결코 의식하지 못했던 근원에 그녀가 위치한다. 그녀에 대한 죄책감은 그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을 관통하여 왔던 것이다.

화제사건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그녀에 대한 기억들을 비로소 떠올리며

그녀에게 속죄한다. 일본제국의 군인이라는 집단적 규범에 의한다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남성으로서의 원초적 양심에 의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책임의식의 방기였다. 그는 그 죄책감을 무의식의 저 밑바닥에 억압한 채로 70세의 노년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K는 그의 환영 속에 계속 등장함으로써 그의 자기실현을 돕는 아니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환영 속의 K는 그에게 이사 갈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게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끔찍한 일인지. 필요한 게 다 있잖아요, 아니 그 이상이죠.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타운에 멋진 집과 뜰이 있습니다. 게다가 평판도 좋고 존경도 받아요. 시간도 많고 조용하고 돈도 아쉽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걸 마련하느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따뜻하게 환영받았어요. 모든 것이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흐린 눈이 나를 뻘히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불안해요, 소위님. 정말이지 이사를 가면 좋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소위님.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¹⁷⁾

여기서 ‘이사’야말로 평판과 존경과 경제적 안정과 남으로부터 부러울 정도로 따뜻하게 환영받는 삶, 즉 페르조나와 동일시해온 삶을 단절하여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K의 환영을 쫓아다니던 하타는 서니가 사용하던 목욕탕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나오는 갈색의 녹물들을 다 빼버리고 욕조에 깨끗한 물을 가득 받아 그 속에 들어가 앉는다. 그는 그 안에서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아직 이 생애, 이 세계에, 인류의 행위와 흔적에 줄을 댄 어떤 일에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처럼 조용히 몸을 웅크린 채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 나는 순수를

17) 이창래, 제2권, 141면.

원했다기보다는 뒤로 거슬러 올라가 지을 수 있는 지우개를 원했다. 시작 이전을 원했다. 내 모든 세월을 팔아버리고 어떤 앞선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의문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¹⁸⁾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타는 자신의 성공했다고 여겨온 삶을 반성하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회구한다. 그가 물이 맑아질 때까지 흘러보낸 불그스레한 갈색의 녹물은 그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즉 죄책감으로 얼룩지고 남의 평판만을 의식해온 제스처 인생일 것이다. 그는 깨끗한 물속에서 재탄생한다. 이 때 육조는 어머니의 자궁이며, 창조요람이다. 깨끗한 물은 태아를 감싸는 양수와 같은 창조력의 원천이고, 원수(原水)로서의 생명의 근원이며, 재생의 상징이자 K에게 참회하는 속죄의 물이라고 하겠다. 용에 의하면 물은 무의식의 가장 일반적인 상징이다. 하타의 자아 찾기는 그의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아니마로서의 여성 K를 기억함으로써, 그녀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하타의 삶은 변화한다. 바다에서 수영하다 익사할 뻔한 손자 '토마스'와 친구 '레니'를 내적인 자발성에 의해 망설이지 않고 구하는가 하면 그의 내면이 요구하는 대로 서니와 화해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회경제적 성공의 표지인 튜더풍의 집을 팔 결심을 한다. 그는 그 돈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히키' 부인의 아들을 위한 기부금을 낼 것이며, '히키' 부인이 사들여 운영하다 실패한 서니의료기기를 다시 사들여 자신과 서니의 이름으로 공동 등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게 2층 아파트에서 서니와 토마스 모자가 머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날 것이다. 가야 할 곳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소설의 결말은 더 이상 타인지향적이고 집단적인 투사에 의하여 형성된 제스처가 아니라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조화를 이룬 하타를 보여준다. 마침내 그는 페르조나와 동일시된 자아를 벗어난 성숙한 자아를 실현한 것이다. 즉 진정한 자아정체성

18) 이창래, 위의 책, 144면.

을 회복한 것이다.

4. 탈식민과 다문화적 정체성

작가 이창래는 이 소설에서 단지 페르조나에 동일시해온 자아를 벗어나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실현하는 노년남성을 그리는 데에만 그 목표를 두지 않았다. 아니 하타로 하여금 페르조나의 삶(제스처 인생)을 살도록 그의 무의식을 지배해온 집단의 정체가 무엇이나를 밝히는 것은 이 작품의 주제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즉 『제스처 라이프』는 정신대로 끌려갔던 여성에 관한 소설이자 피식민지 조선 혈통의 일본계 이민자인 하타의 민족정체성을 묻는 탈식민주의적인 주제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를 재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분석학적 탈식민주의 이론가 바바(Homi Bhabha)는 기억하기는 결코 자기 반성이나 회고와 같은 정태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외상을 이해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짜 맞추어 보는 것, 고통스러운 다시 떠올림이라고 했다.¹⁹⁾ 릴라 간디(Leela Gandhi) 역시 단순히 식민기억들을 억압하는 것만으로 식민경험이라는 불편한 현실에서 해방되거나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²⁰⁾ 일본계 이민자로서 미국사회에서 성공했지만 칠십에 이르러 정체성(제스처 인생)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하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로 하여금 과거의 억압된 기억들을 복원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과거의 기억들과 직면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현재까지도 그를 지배하는 종속의 흔적과 기억들, 다시 말해 일제 식민주의가 남긴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탈식민화는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적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작가는 주인공 하타를 조선인이자 일본인

19)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1994, p.63.

20) 릴라 간디,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17면.

이며, 최종적으로 미국인이 된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 가정에 입양된 이 인물을 대동이공영권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그들의 침략주의를 호도하며 동남아시아의 침략에 나선 군인(위생장교)으로 설정하여 정신대로 끌려온 조선여성 K와 만나도록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입양녀 서니를 흑인군인과 한국여성 간의 혼혈아로 설정하고, 그의 아들 토마스도 흑인남성과의 혼혈아로 설정함으로써 민족 또는 인종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하타의 삶을 지배해온 제스처로서의 인생은 그가 미국 이주 후에 새롭게 터득한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일본인 가정에 입양된 12살의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된 것임이 밝혀진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자아를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치시켜 왔다. 사회의 불침번으로 그 자신을 헌신하고 그의 모든 것을 사회에 의탁하여 해결해야 하며, 자아와 사회의 이상적인 공생관계야말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해방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 벌써 깨달았음을 그는 기억해낸다. 그것은 그가 자란 전체주의 사회인 일본의 국민교육의 의도된 결과였다. 작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인보다 전체(국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국민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의식화해왔는가를 하타의 의식에서 잘 포착해낸다.

더욱이 하타는 입양으로 일본 국적이 되었지만 혈통상으로는 피식민지 조선인이었다. 따라서 비천하고 가난한 친부모에게 되돌려질지도 모른다는 입양아로서의 불안감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피식민지인의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일본인 되기는 더욱 철저했다. 그는 제국의 군인으로서 오점을 남기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K의 죽어 달라는 요구를 외면했고, 결국 그녀를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운간 당한 후 살해당하도록 방치했다. 그는 미국에 이주한 이후까지 평생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돌이켜 고백한다. 그 두려움이란 비천한 조선인으로 되돌려질지 모른다는 입양아로서의 불안감이자, 독립된 이후에도 일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피식민지 출신의 콤플렉스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계 이민자로서 미국의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디아스포라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생 그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구로하타 집안에 양자로 들어간 날부터 제국 육군에 입대한 날까지 계속된 두려움이었다. 심지어 서니의료기기의 문을 연 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된 두려움이었다.²¹⁾

그런데 그가 의식의 차원에서 비천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삭제하고, 철저히 일본사회가 요구하는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충성과 의무로 무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나타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진정한 본성이 전장의 시련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후시 나라는 인간을 내 친족이 사는 비천한 곳으로부터 떼어내 길러낸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냐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증명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본질적이고 내적인 정신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럼에도 나는 늘 궁금했다. 훈련과 양육이 우리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단순한 흙과 재와 피보다 더 큰 힘을 지니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사회적 단련은 결국 죽은 자들의 썩어가는 옷처럼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 밑의 뼈가 드러나는 것일까?²²⁾

그것은 조선인이라는 선천적인 혈통의 정체성(흙, 재, 피)과 일본인으로서의 후천적 정체성(훈련, 양육) 사이에서 나타내는 분열이요, 불안이다. 조선출신의 K와의 만남도 필연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그의 불안을 뒤흔든다. 그녀가 조선인이라고 두 번이나 물었을 때 이를 강하게 부정했음에도 그는 그를 똑바로 보며 조선어로 말하는 그녀의 주제넘은 태도에 흔들리며 묘하게 위압감을 느낀다. 그녀가 그의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키며, 그가 의식적으로 거부해온 조선인의 정체성을 환기했기 때문이다. K를 만난 후 그는 조금씩 변화한다. 다른 일본병사들이 조선인 위안부를 ‘조센빠’라는 경멸적 단어로 부르며 인간이 아니라 마치 우리 안의 짐승처럼 여기는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잠시 몸이 얼어 붙었”고, 위안부를 부드러운 살덩어리들로, 사라지기 전에 얼른 가져야 할 짝과 따뜻한 쾌락으로, 그것이 전시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여기는 그들과는 달리 K를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그녀를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떼어놓을까를 생각하게

21) 이창래, 제2권, 70면.

22) 이창래, 제1권, 161-162면.

된다.²³⁾ 그것은 단지 젊은 남자로서 자신이 사랑하게 된 젊은 여자에 대한 소유욕과 보호본능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아니었음을 그때 그는 의식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나는 내가 늘 갈망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K가 원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질서 속에 자기 자리를 갖는 것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품성을 갖춘 젊은 여인이 되어, 그녀의 아버지에게 남동생만큼이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배움과 우아함에 기초한 독립을 원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택하고 싶었다. 아이를 낳고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다. 진정한 소명을 찾고 싶었다. 지금의 나처럼 늙고 싶어 했다. 물론 나와는 다른 색조로, 다른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겠지만, 내가 바란 것은 큰 집단을 이루는 것의 한 부분(비록 백만분의 일이라 해도)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스처들뿐인 삶 이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과정을 마치는 것이었다.²⁴⁾

그는 뒤늦게 전쟁이 K와 그로부터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돌이켜보건대, 전쟁의 폭력성은 K로부터 그녀의 생명을 비롯하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녀의 모든 꿈을 앗아가 버렸지만 그 자신에게도 타인지향적인 제스처뿐인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그나 병사들, K나 다른 여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중심을 구성하는 존재들이었으며, 동시에 전쟁기계에게 자신과 서로를 먹이로 내주고 만 전쟁의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은 똑똑히 보이지만, 사실 나는 그 상황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K와 다른 여자들도, 병사들과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무시무시한 것은 우리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순진하게 동시에 순진하지 않게 더 큰 과정들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전쟁기계에게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먹이로 내주고 말았다는 것이다.²⁵⁾

이 대목에서 재미한인 1.5세인 이창래의 독특한 역사의식이 드러난다. 만약

23) 이창래, 제2권, 96-97면.

24) 이창래, 위의 책, 156면.

25) 이창래, 위의 책, 156면.

그가 순수한 한국작가였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전쟁에 대한 그의 개성적 인식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다. 위안부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살해당한 K나, 제국의 군인으로서 살아남은 하타나 다른 병사들 모두가 전쟁의 중심에서 큰 과정을 구성하는 존재였으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전쟁기계에 자신과 서로를 먹이로 내주고 만 피해자들이라는 인식은 이창래가 재미한인이었기에 가능한 태도일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전쟁에서 그에 동원된 개인들 모두가 피해자라는 시각은 그가 만약 순수한 한국작가였다면 좀처럼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타의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속임이나 위장의 의미가 함축된 패싱(passing)으로 파악한 이선주는 식민지 시대 일본에서 사는 조선인으로서 하타가 한 일본인 행세는 식민통치의 과정에서 살기 위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택한 국적 감추기라는 정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본인 되기는 너무 필사적이고 결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²⁶⁾ 하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피식민지인에서 제국의 국민으로 패싱하며, 조선인임을 부정하고 철저히 일본인으로 살아간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한 이후까지도 일본계로 행세한 것은 그만큼 피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본제국의 억압이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억압의 가장 확실한 예가 정신대로 동원된 K와 그 언니, 그리고 다른 소녀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이민한 이후까지도 조선인임을 계속 숨긴 것까지…….

아무튼 미국에 이민한 하타는 그가 과거에 필사적으로 일본인처럼 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미국인으로 동화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골프여행에서 다른 일본인을 만났을 때, 그 둘만이 다른 미국인들과 다르다는 느낌, 그곳 미국인들 사이에 그들이 끼어들 곳이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²⁷⁾ 또한 메리 번즈의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사교행사나 무도회에서 유일한 유색인종이라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²⁸⁾ 그것은 그가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아무리 좋은 평판과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바바가 말했듯이

26) 이선주, 『이창래의 『제스처인생』-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 『미국학』 31-2, 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2008, 238면.

27) 이창래, 제1권, 36면.

28) 이창래, 위의 책, 138면.

‘거의 같지만 똑같지 않은’ 님은꼴로서의 동양계 이주민에 불과했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바바에 의하면 피지배자가 식민권력에 의해 제국에 동화되는 가운데 지배자를 모방하게 됨으로써 ‘거의 같지만 똑같지 않은’ 님은꼴로서의 피지배자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²⁹⁾ 그는 노력하면 미국인과 똑같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칠십에 이르러 과거를 돌이켜봄으로써 비로소 평생을 통해 부단히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오랜 어리석음이며, 그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인 가정에 입양된 12살의 나이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음을 기억해낸다. 작품의 서두에서 사랑스럽게 “이곳 사람들은 나를 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사회적 인정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아니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즉 릴라 간디의 말처럼 그는 과거에 대한 엄정한 사유를 함으로써 비로소 정신적 해방을 이룬 것이다.

그저 매일 밤 가게를 나오면서 슬쩍 돌아보았을 때, 저곳이 우리를 담아 줄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동안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일본인 부모의 손을 잡고 정규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영광스런 전쟁으로 일컬어지던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할 때까지, 그리고 이 나라에, 그것도 매우 품위 있는 타운에 정착할 때까지 그것이 내 오랜 어리석음, 나의 지속적인 실패가 아닐까?³⁰⁾

탈식민주의 이론가 사이드(E. W. Said)의 파생(filiation)과 제휴(affiliation)라는 개념에 의한다면, 주인공의 삶은 파생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제휴의 삶이 제스처 라이프가 되고 만 경우이다. ‘파생’이란 세대와 세대 사이의 자연스러운 전이나 계승성, 또는 자신이 태어난 문화와 개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제휴’는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와 결속-예컨대 교우관계, 직업, 정당활동 등-을 의미한다.³¹⁾

29)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37면.

30) 이창래, 제2권, 42면.

31)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미국소설』, 열음사, 1990, 129면.

하타의 경우 파생은 그가 부정했던 조선인으로서의 계속성으로, '제휴'는 입양 후 갖게 된 일본인, 또는 이민 후 미국에서의 관계나 미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그의 제스처 인생, 페르조나로서의 삶은 제휴에만 매달림으로써 자아상실에 빠진 삶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새로운 자각은 파생에 대한 인정을 통해 진정한 제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설은 조선인이었지만 입양과 이민으로 후천적으로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획득한 하타와 달리 흑인군인과 한국여성 사이의 혼혈로 태어나 하타에게 입양된, 또 흑인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서니라는 혼혈여성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사회로 이민한 동양계 이주민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백인 주류사회에 적응시키려는 하타의 양육방식을 거부하고 기출한 서니가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피식민 경험과 전쟁경험, 그리고 이민경험이 있는 하타 세대와는 다른 서니 세대의 혈통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를 벗어난 자리에 위치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작가는 비전으로 제시한다. 즉 하타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니의 당당하고 독립적 삶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타의 실패한 삶을 비취주는 거울로 작용한다. 하타의 서니와의 화해는 단순한 부녀지간의 화해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타로 하여금 서니의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이며, 인정이다. 또한 그것은 하타의 동화주의적 삶(제스처 인생)이 실패이며, 서니의 다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인정이 오히려 성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미국은 건국 초기의 동화주의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자 여러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이 미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다문화주의로 선회했다.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체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것의 핵심은 차이의 공존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상이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적 배경, 성, 연령, 계층적 귀속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제도·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³²⁾이다.

32)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26면.

결말에서 하타는 그의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던 집을 팔고 내 살, 그리고 피, 내 뼈를 짚어지고 갈 것이며, 나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곳에 이를 것이다. 마치 귀향을 하듯이, 라고 다짐한다. 이것은 그가 평생 억압해 왔던 조선인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벗고 다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그것이 결국 진정한 미국인으로 되기 위한 방식이라는 자각이다. 여기서 작가의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즉 탈식민을 위해 다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민족 다문화의 미국사회에서 동양계 이민자들은 일방적인 동화보다는 동양인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제스처 라이프를 벗어나 당당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5. 결론

이 논문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에 나타난 인물의 정체성 찾기라는 주제를 칼 융의 분석심리학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제스처 라이프』의 주인공 하타는 재일한인으로서 일본인 가정에 입양됨으로써 일본인이 되었으며, 태평양전쟁 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위생장교로 복무한다. 그 후 그는 미국에 이민하여 의료기기상을 운영하며, 예의바른 미국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70세에 이르러서 페르조나에 동일시해온 삶에 회의를 나타내며 진정한 자아 찾기의 여정에 나선다. 메리 번즈, 서니, K(끝애)는 하타로 하여금 페르조나에 동일시해온 삶을 단절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라고 촉구하는 아나마로서의 여성들이다. 하타의 자아 찾기는 결국 그의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여성 K를 기억함으로써, 그녀의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설의 결말은 더 이상 타인지향적이고 집단적인 투사에 의하여 형성된 제스처가 아니라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가 조화를 이룬 하타를 보여준다. 마침내 그는 페르조나와 동일시된 자아를 벗어나 성숙한 자아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하타는 모범적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삶은 지배문화로부

터 인정받기 위한 제스처 라이프였음을 자각한다. 그는 노력하면 모범적인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버지도, 연인도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단지 타인지향적인 제스처 라이프, 즉 페르조나에 불과했음을 성찰한다. 그는 딸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한편 그가 평생을 두고 억압해온 조선인으로서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을 때000에 비로소 미국인으로서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주인공의 삶은 사이드의 개념에 의한다면 파생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제휴의 삶이 제스처 라이프가 되고 만 경우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자각은 파생에 대한 인정을 통해 진정한 제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하타의 자각뿐만 아니라 서니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민족 다문화의 미국사회에서 동양계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대한 일방적 동화보다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제스처 라이프를 벗어나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주제어 : 재미한인소설, 이창래, 제스처 라이프, 정체성, 파생, 제휴, 사이드, 디아스포라, 탈식민주의, 칼 융, 다문화주의

<참고문헌>

-기초자료

이창래, 정영목 역, 『제스처라이프』 제1권·제2권, 중앙 M&B, 2000.

Chang-rae Le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1999.

-논저

고양성·노종진,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등장
인물의 존재의식과 정체성』, 『영어영문학 연구』 47-2, 2005, 143-166면.

권택영, 『응시로서의 『제스처인생』-이창래와 라캉의 다문화적 윤리』, 『영어영문
학』 48-1, 2002, 243-261면.

김미영, 『〈제스처라이프에 나타난 송고미의 교육적 가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2005, 429-458면.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미국소설』, 열음사, 1990.

나영균, 『『제스처 인생』: 신역사주의적 고찰』, 『현대영미소설』 7-2, 현대영미소
설학회, 2000, 1-12면.

박보량,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이민사회 속에서의 하타의 정체성 모색』』,
『미국소설』 2-2, 미국소설학회, 2005, 127-149면.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유제분, 『재현의 윤리: 『제스처 라이프』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억과 애도』, 『현대
영미소설』 13-3, 현대영미소설학회, 2006, 85-89면.

윤정현, 『한인소설에 나타난 이주민의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21, 한국문예
비평학회, 206, 115-135면.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이선주, 『이창래의 『제스처인생』-패싱, 동화와 디아스포라』, 『미국학』 31-2, 서울
대 미국학 연구소, 2008, 235-264면.

이소희, 『『제스처 인생』에 나타난 젠더화된 트라우마』, 『현대영미소설』 13-1, 현대
영미소설학회, 2006, 133-156면.

- 장사선, 『재미한인소설에 나타난 폭거와 응전』, 『한국현대문학연구』 18,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2005, 481-509면.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 Bellemin-Noel, Jean. 최애영 · 심재중 역, 『문학텍스트의 정신분석』, 동문선, 2001.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1994.
-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2005), 592-616.
- Chang, Joan C.H. “*A Gesture Life*”: Reviewing the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7:1(2005), 131-152.
- Gandhi, Leela.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 Lee, Hae-Nyeon,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Writer’ Post-Colonialism”,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11-133면.

[Abstract]

An Outsider's Quest for Identity in Mainstream Society: Reading *A Gesture Life*

Song Myunghee

This paper examines *A Gesture Life* by Korean-American writer, Chang-rae Lee, focusing on the theme of 'searching for identity' by the protagonist of the novel, Franklin Hata. Examinations will be made from the perspectives of Carl Jung's psychoanalysis and post-colonialism.

The protagonist, Hata, had a complex identity as he was not a Korean, a Japanese, or an American. This complicated identity didn't only manifest in his racial status. He was considered to be a modest and kind person by his white neighbors however, his adopted daughter, Sunny, became a target of ridicule because she focused too much on gestures and etiquette. Also, he appeared to be a benevolent person but he couldn't genuinely love other people. As an army doctor in the military, he had had compassion for a Korean woman, Kkutaeh (끝애), who was a comfort woman for the Japanese army, but some time later, he turned a blind eye to her death. Besides that, he couldn't understand a white woman's, Mary Burns, love for him. Lastly, his daughter, whom he hoped to become a respectable person, ran away from home.

In the resolution, Hata used to think if he put effort into a gesture life, to be identified in a domination culture, he could become a true Japanese, American, father, lover, but he realized this was nothing more than an other-directed life, 'a gesture life'. While he tried to reconcile with his daughter (Sunny), he determined "I'll take care of my flesh, my blood, and my bones." and "I'll return

after coming full circle, like returning home.” In other words, he realized, to attain his identity as a true American, he should accept his identity as a Korean rather than try typical efforts.

According to E.W.Said's theory, based on filiations and affiliations, the protagonist's life was turned into a gesture life from a life of affiliations, by denying his filiations. Therefore, the protagonist's awakening was that he had been trying to use his filiation to attain a true affiliation. This work offers a message. In American society, a multi racial and multi cultural society, Asian-Americans should accept their identities, not pursue assimilation into a society, to live their own lives.

【Key words】 : Korean-American Novel, Chang-rae Lee, *A Gesture Life*, identity, filiation, affiliation, E. W. Said, diaspora, postcolonialism, C.G.Jung, multiculturalism

송명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ongmh@pknu.ac.kr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